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

성명	
----	--

수험번호							3		
------	--	--	--	--	--	--	---	--	--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옮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대승의 법은 오직 일심(一心)이 있을 뿐이며 일심 이외에 다른 법은 없다. 모든 존재의 참 모습은 생멸(生滅)의 구분이 없으며, 일체의 인위적 구별이 해체된 상태이다. 속(俗)되거나 탈속(脫俗)한 모든 것들의 참 모습은 분별이 없는 것이고, 참된 진여(眞如)이니 그릇된 분별의 왜곡이니 하는 것도 근본에 입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다.

<보기>

- ㄱ. 출가 수행을 통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였다.
- ㄴ. 선정과 지혜를 병행하여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 ㄷ. 진(眞)과 속(俗)이 하나라는 대중 불교를 추구하였다.
- ㄹ. 대립된 이론을 화(和)의 논리로 조화시키려고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의 견해로 옮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이성 자체는 행위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반면 감정과 욕구들은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기를 제공한다. 우리는 욕구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또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 이러한 감정을 토대로 하여 무엇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보기>

- ㄱ.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동정심이다.
- ㄴ. 삶에 필요한 보편적 규범이나 가치가 존재한다.
- ㄷ. 동기가 옳으면 결과와 관계없이 도덕적 행위이다.
- ㄹ. 모든 사람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그림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옮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가)는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통제를 강조한다.
- ㄴ. (나)는 소극적 자유에 더하여 적극적 자유를 중시한다.
- ㄷ. (다)는 부(富)의 편중 해소와 복지 실현을 강조한다.
- ㄹ. (가), (다)는 재화의 분배보다 생산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그림에 나타난 (을)의 태도에 대해 (가), (나)를 주장한 사상가가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고,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늘이지 마라.
- (나) 학문을 탐구하는 이유는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인데, 우상(偶像)이 학문의 진보를 가로 막고 있다.

- ① (가) - 감각을 기초로 세계를 파악해야 해.
- ② (가) - 경험을 초월한 인식은 허구임을 명심해야 해.
- ③ (나) -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해.
- ④ (나) -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신뢰해야 해.
- ⑤ (가), (나) -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해.

5.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진 서양 사상가가 제시하고 있는 행복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모든 것은 영원한 질서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변화한다.
이 법칙은 인간의 심성 혹은 자유 의지에까지 적용된다.
○ 모든 현상이 무한한 실체의 일부이며, 인간의 삶도 영원의 한 조각으로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 ① 타고난 덕이 완전하게 발휘된 상태
- ②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인격신파의 합일
- ③ 자연에 대한 침된 인식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
- ④ 영혼의 각 부분이 내적 조화와 균형을 이룬 경지
- ⑤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

6. 다음과 같이 주장한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의 목적이 쾌락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방탕한 자의 쾌락도 아니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상상되는 성의 쾌락도 아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것은 취할 것은 취하고 금할 것은 금하는 이유를 탐구하거나, 정신이 매우 혼란할 때 생기는 잘못된 의견을 떨쳐 버리는 견전한 사유이다.

- ① 이성이 인간 정신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에 대한 헌신을 중시하였다.
- ③ 실제 생활에서 겸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추구하였다.
- ④ 정념을 부정하고 금욕하는 생활 자세를 강조하였다.
- ⑤ 육체적 쾌락을 통해 정신적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7. 그림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동양 사상가들의 대화 장면이다. (갑)~(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본성이 선하나 정욕에 얹매여 악을 행한다고 보았다.
- ② (을)은 행위를 선택하는 개체적 자율성을 심성의 핵심으로 보았다.
- ③ (병)은 법을 통해 욕망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 ④ (갑)과 (을)은 타고난 본성을 확충시킴으로써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⑤ (을)과 (병)은 악(惡)한 본성을 변화시켜 인의(仁義)를 실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8. 다음 인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은 두 가지 근본이 아닙니다. 본성 가운데는 단지 인의예지 네 가지가 있을 뿐인데 인욕이 어떻게 본성 가운데에 뿌리를 박은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기(氣)가 흐린 차이가 있어서 닦여지고 어지러운 정도가 같지 않으므로 본성이 발(發)하여 감정이 될 때에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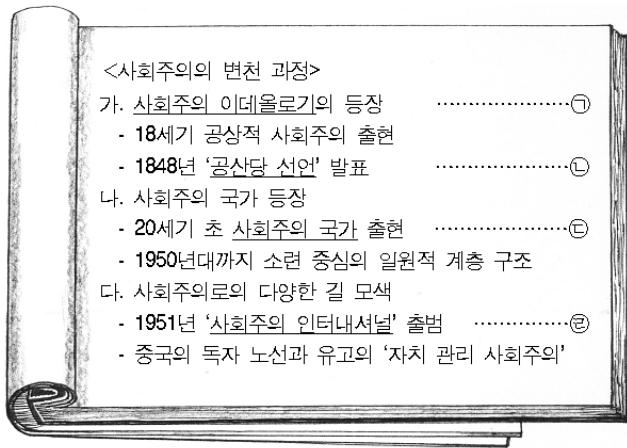
이와 같이 근본은 모두 천리이지만 지나치면 인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미루어 보면 타고난 본성이 선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끝을 살피고 단속하면 인욕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기>

- ㄱ. 절도(節度)에 맞는가에 따라 천리와 인욕이 구분된다.
- ㄴ. 인욕(人慾)은 선천적으로 부도덕한 마음에서 나온다.
- ㄷ. 이(理)가 발(發)하면 천리이고 기(氣)가 발하면 인욕이다.
- ㄹ. 사단(四端)은 칠정(七情)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그림에서 ⑦~⑩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⑦은 경제적 자유주의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ㄴ. ⑧에서는 계급 투쟁을 사회악의 근원으로 보았다.
- ㄷ. ⑨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 출현하였다.
- ㄹ. ⑩은 의회, 선거와 같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은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나) 항상 진리 앞에 결손한 자세로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앎을 추구해야 한다.
 (다) 인간은 두 마리의 말이 묘는 마차와 같다. 두 마리의 말은 욕망과 기개, 마부는 이성에 비유할 수 있다. 이성이 기개와 욕망을 얼마나 적절히 다루느냐에 따라 그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 ① (가)는 모든 악행이 무지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② (나)는 진리 인식보다 실천 의지를 강조하였다.
 ③ (가), (나)는 이성을 통한 덕의 실현과 행복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였다.
 ④ (가), (다)는 현실 세계에서 참다운 존재를 찾고자 하였다.
 ⑤ (나), (다)는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간주하였다.

11. (가), (나)를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사회 혼란은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자기 집 자기 나라를 사랑하듯이 다른 집 다른 나라를 사랑한다면, 천하는 태평하고 백성은 잘 살 것이다.
 (나) 오직 어진 사람만이 남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면서 윗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이는 드물다. 또한 윗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도 난리를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없다.

- ① (가)는 사치를 삼가고 소비를 줄일 것을 강조한다.
 ② (나)는 재화의 부족보다 공평한 분배를 중시한다.
 ③ (가)는 혁명(革命)을, (나)는 정명(正名)을 강조한다.
 ④ (가)는 무차별적 사랑을, (나)는 분별적인 사랑을 주장한다.
 ⑤ (가)는 (나)와 달리 예악(禮樂)에 대해 비판적 입장은 취한다.

12.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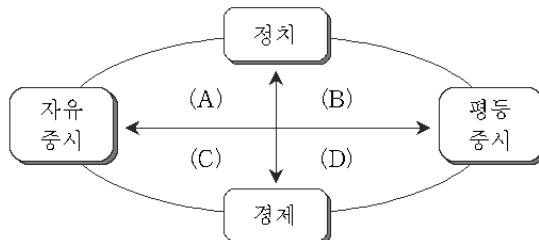
관념은 관념의 대상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통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신을 믿어서 용기가 생긴다면 신의 관념은 의미가 있다. 유용한 의미를 가지면 신의 관념은 진리이다. 이렇듯 어떠한 관념이라도 그것이 유용하다면 그 관념은 진리이다.

<보기>

- ㄱ. 편리한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다.
 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ㄷ.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며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ㄹ. 인간의 감각적 경험은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그림과 같이 사회 사상을 분류할 때 (A)~(D)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② (B)는 국민 주권과 보통 선거 제도의 원리이다.
 ③ (C)는 소유와 생산의 주체가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D)는 경제적 형평성보다 효율성 중대를 중시한다.
 ⑤ (A)와 (B)는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윤리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도덕적 가치는 오직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할 경우에만 드러난다. 이성은 이러한 의무의 요구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네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소홀히 다루었다.
 ② 도덕적 행위에 있어 인간의 욕구와 감정을 중시하였다.
 ③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행동이 된다고 보았다.
 ④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현실에서 부딪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15. 다음 내용에 나타난 공통된 주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왕께서는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역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무엇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것인가’ 하면, 오히려 위아래가 서로 이로움을 쥐하려 들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생각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원칙이 실종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유연성이 주는 이득보다 원칙의 결여로 생기는 손실이 더 커지게 된다.

<보기>

- ㄱ. 이익 추구보다 의리를 우선해야 한다.
 ㄴ. 도덕적 삶보다 경제적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
 ㄷ. 이로움을 보면 그것이 옳은지를 성찰해야 한다.
 ㄹ. 백성을 위해 항심(恒心)보다 항산(恒産)에 힘써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가), (나) 사상의 공통된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참선으로 자신의 본성을 밝혀 깨달음의 묘경(妙境)을 터득하고, 부처의 깨달음을 교설(敎說) 외에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중생의 마음에 전하는 것을 종지(宗旨)로 삼는다.

(나) 격(格)은 바로잡는 것이요, 물(物)은 마음이 발동하여 이룩한 일이다. 따라서 격물이란 밖에 있는 이치를 파악하기 전에 주체로서 마음의 선천적인 암의 능력을 발휘하여 양심을 바르게 깨닫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보기>

- ㄱ. 개인의 수양보다 사회의 개혁을 강조한다.
- ㄴ. 이론적인 지식 탐구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한다.
- ㄷ. 시비, 선악을 초월한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 ㄹ.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인간의 참 모습을 찾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가), (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의지이다. 이 의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천체(天體)를 움직이는 힘이다. 인간의 본질은 사유나 이성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인간은 의지라는 자기 내면의 본질에 의해 움직인다.

(나) 신을 거역하느냐, 아들을 희생시키느냐를 결정해야하는 성서 속의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지식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삶에서 가장 날카로운 순간은 개인적이며, 개인은 이때 한 주체로서 자신을 깨닫게 된다.

- ① (가)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주장하였다.
 ② (가)는 관찰이나 실험으로 검증된 지식을 중시하였다.
 ③ (나)는 객관적인 존재 목적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였다.
 ④ (가)는 금욕적 삶을, (나)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였다.
 ⑤ (가), (나)는 세계의 비합리성과 인간의 현실적 삶을 중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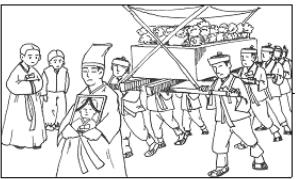
18.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관점을 가진 사상가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가) 성(性)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호(嗜好)를 말하는 것이다. 성이란 그 자체로서 선한 어떤 것도 아니며, 다만 구체적 대상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향이다.

(나) 만물은 모두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가지고 있어 순선(純善)하며, 이 선한 본연의 성(性)이 현실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기질의 차이 때문이다.

- ① 인간의 도덕성 문제를 경시하였다.
 ② 도덕적 자율성과 주체성을 경시하였다.
 ③ 본성을 신뢰하여 후천적 노력의 필요성을 무시하였다.
 ④ 악행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미흡하였다.
 ⑤ 본성을 선하게 하기 위한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간파하였다.

19. 그림 (가)~(라)의 통과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가)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겼으며 사회적 지위나 경제 능력을 중시하였다.
(나)		자신의 근원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보본(報本) 의식을 주로 표현하였다.
(다)		계세(繼世)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의식이다.
(라)		오늘날에는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20. (가), (나)를 주장한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인격 수양의 자세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덕(德)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구분된다. 지적인 덕은 교육에 의해 생겨나고 성장하기도 하는데 비해, 도덕적인 덕은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이 아닌 것처럼, 하루의 실천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 호연지기(浩然之氣)란 지극히 크고 강한 것으로, 의(義)와 도(道)를 좌하는 것이니, 의를 모아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매지 아니하여 돌보지 않거나, 자라지 않는다는 쪽을 뽑아 주는 것은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다.

<보기>
ㄱ. 덕의 실천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야 한다. ㄴ.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ㄷ. 겸소와 결제를 통하여 부동심의 경지에 이른다. ㄹ. 인간적 욕구를 제거하고 타고난 덕을 함양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